

# 일본 기업의 수명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유명한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기업이 많이 있다. 일본의 '100년 경영연구 기구'에 따르면, 100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만 6000 개 사에 달하고 세계 100년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일본 기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1949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 된 것이다. 1875년 창업 이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도시바는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기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도시바의 상장폐지 소식을 접하고 문득 예전에 본 일본 기업의 수명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다.

일전에 일본 기업의 수명을 측정하는 흥미로운 연구 논문을 본 적이 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된 대부분 기업이 약 30년을 전후로 상장폐지 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명쾌한 결

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실 해당 논문을 읽은 것이 꽤 오래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라는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의 수명은 약 30년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기간만으로 일본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내린 결론은 설부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1949년 문을 열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급성장하면서 많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따라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일본 기업의 수명이 30년이기보다는 일본 증권거래소의 평균 상장 기간이 약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100년 이상 된 기업의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 수명으로 따지면 30년을 넘긴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든 기

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잘 알려진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대기업을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도시바와 같이 19세기 말 개화기부터 자리를 잡고 성장한 재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재벌은 미군에 의해 해체되었으나 운이 좋게 이를 회피하거나, 족벌이 배제되고 소유가 분산된 전문기업으로 재편되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이 그룹은 업력이 이미 150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시바는 148년 만에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등장해서 성장한 소니와 같은 기업도 60년이 넘는 역사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일본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 시기에 등장한 기업들이 새로운 대기업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만 보더라도 일본 기업의 수명은 적어도 60년 이상이며, 장수기업은 150년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수명은 100년을 넘는다. 역시 일본은 사람도, 기업도 장수국임은 분명한 것 같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밸류업 '여부'도 공시가 필요하다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요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자율성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힘이 빠지면서 국내 증시는 점점 매력을 잃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글로벌 증시들이 급락하면서 상반기에 밸류업 효과로 올려둔 코스피 상승분도 며칠 만에 반납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일부 기업들은 '혈값 합병' 등 주주환원 역행 기조를 보이기도 한다. 사실상 '밸류업' 흐름에 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더라도 일부 주주들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증권맨은 "밸류업 참여 여부 자체에 대한 공시라도 확정시켜

야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내지 않더라도 기준 기간 내 할 계획이 없다는 안내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상당히 공감했다. 밸류업이 중장기 정책이라고는 하나 초반부터 화력을 잃으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11개에 불과하다. 본 공시를 낸 기업을 추리면 키움증권, 에프앤가이드,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6개사로 다시 좁혀진다. 지난 5월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확정된 지역 두 달이 지났지만 밸류업 공시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대표적인 밸류업 관련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이 그나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당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을 때, 시장에서

요구했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나 세제 지원 등이 모두 빠지면서 실효성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 방안이 '밸류업' 동맹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지수다. 세제 인센티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8월 내 입법예고 후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밸류업'의 큰 손으로 꼽혔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BUY KOREA'에서 'BYE KOREA'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안하 기대감에 부풀었던 글로벌 증시는 어느새 'R(경기침체)의 공포'에 압도되고 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동반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8월 6일 (금 7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바쁘게 움직이자. 48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자. 60년생 삶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움직여라. 72년생 수영선수가 물을 두려워한다. 84년생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줘라.



37년생 싫다고 금방 달아나지 말고 진중히 생각. 49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다. 61년생 오늘 멀리서 반가운 친구가 찾아온다. 73년생 이직보다는 부족한 공부를 더 해라. 85년생 아침부터 행운의 좋은 일이 있겠다.



38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50년생 인간의 보편적 가치는 신용에서 나온다. 62년생 부단한 노력이 꾸준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74년생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 86년생 기대를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한다.



39년생 처음이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다. 51년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63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5년생 아름다운 시를 좋아한다고 다들 시인이 되지는 않는다. 87년생 세월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니 잡고 가라.



40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52년생 확실한 거절이 상대를 지지 않게 한다. 64년생 오늘은 불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상생생. 76년생 근거 없는 구설이 발생할 수 있다. 88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4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3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65년생 물다리로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7년생 가족의 평화나나의 성공을 이끄는 지팡이. 89년생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행동.



42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다치게 한다. 5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마음이 혼란. 6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결명심. 78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하고 높이 뛰자. 90년생 물이 멀리 가니 마유도 멀어진다.



43년생 분하고 슬퍼도 이웃 탓이 아니고 내 탓. 55년생 종로에서 뿔맛과 한강에 가서 분풀이. 67년생 진실을 알아도 떠들지 말고 두고 보면서 신중. 79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내라. 91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주변에서 원망한다.



44년생 뒤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6년생 꽃이 피는 시기는 나무마다 다르다. 68년생 말조심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는다. 80년생 남의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을 바라보라. 92년생 그동안 닦아온 건강한 신체에서 보석비가 내린다.



45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57년생 에디슨처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69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은 잊어버려라 추억이 아니다. 8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93년생 인색보다는 돈을 사랑으로 대해보라.



46년생 손쉽게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5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70년생 진주와 같이 깨끗한 마음이 결실을. 82년생 실력을 키우면 기회는 오기 마련이니 세월이 헛되지 마라. 94년생 고가 발생할 수 있을 시 계단 조심.



47년생 맑은 날 외출도 기쁨이다. 5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은혜. 7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자. 83년생 번거로운 일이 많으나 해낸다. 95년생 사람은 다양한 능력과 번뇌의 속성이 있으니 나만 도태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 김상회의四季

풍수의 대가는 어디에(2)

그리고는 총각에게 쪽지를 하나 적어주고는 곧바로 수원성에 가서 수문장에게 이 서찰을 보이라 했다. 총각은 시키는 대로 했다. 수문장은 임금의 어명이 적힌 내용을 보니 쌀 3백석을 내주고 총각의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주라는 내용이였다. 숙종은 갈처사가 사는 집 앞에 다다랐다. 임금은 신분을 속이고 시냇가에 뒷자리를 쓰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꾸짖었다. 갈처사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명당인데 거기는 관이 들어가기도 전에 쌀 삼백석이 생기는 자리란 말이오!" 했다.

이에 놀란 숙종이 "아니 그렇게 터를 잘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외딴 곳에 혼자 사시오?" 갈처사 왈, "저 아래 부자로 사는 놈들은 다 사기꾼에 도둑질에다 공금을 잠깐처럼 쓰고 사니 기와집이 다 무슨 소용이오?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은 나중에 임금이 다녀갈 곳이오!" 하는 것이다. 숙종은 또 놀라며 "그럼 임금은 언제쯤 여기를 다녀간다는 것이오?" 라고 물었다. 그러자 갈처사는 몇 년 전에 풀어 놓은 것이 있다며 집안으로 들어가 먼지 묻은 종이를 들고나와 풀어보는데 깜짝 놀라며 오늘이 바로 그날로 임금을 보고는 바로 앞드려 절을 했다.

이에 숙종은 갈처사를 칭찬을 하며 자신의 뒷자리를 미리 봐달라고 부탁을 한다. 거기가 바로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오릉이다. 그 다섯 능 중에 명릉明陵이 숙종의 능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사찰인 월광사의 위치도 서오릉과 인접한 덕양구 용두동이다. 서오릉과는 마주 보는데 필자가 이곳을 월광사 터로 정했을 때도 풍수적 비결을 참고했다. 요즘은 하도 땅을 많이 파헤치고 통신탑이나 철탑이 많아 지기가 흐트러지니 천하제일 지관이라도 풍수의 법칙들이 깨지는 이런저런 변수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6	7		4	3		2
5				3			
		3		5			
	7			8			
		5				8	
				7			4
				2		9	
				1			3
8		2	9			5	6

	5	4		7			2	
	2	3						
				2			4	
	7			3			9	
	3			1	4	2		5
		6			5		8	
	8				6			
							2	6
	3			2			4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9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